

" 불교입문 부모님 영향 50% 불음주계 지키기 가장 어려워 "

국회의원불자 실행설문조사

<본지 최초분석>

우리나라 불자 국회의원들은 3개월에 한두번 이상은 꼭 사찰을 방문하며, 80.0%가 가정에 불상 등 불교상징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자들의 불교도덕성 회복 및 종단화합을 한국불교의 당면과제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결과는 현대불교신문이 35년 신년호 기획특집으로 실시한 '국회의원 불자실행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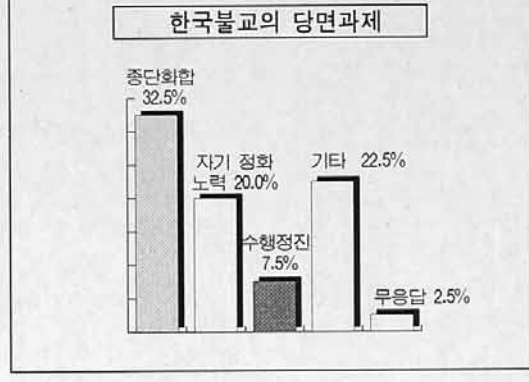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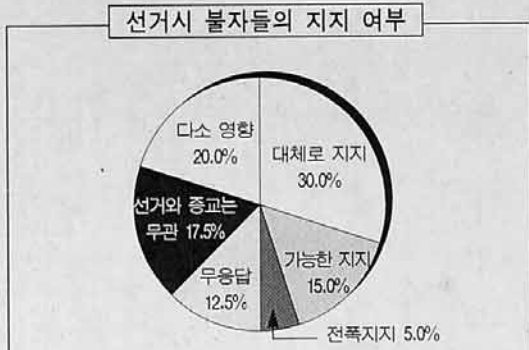
불자 국회의원들의 실행활동과 한국불교의 사회참여 및 당면과제, 조계종 개혁 등 불교 전반에 관한 질문이 제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불자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국회의원국회정당회원과 전 정당위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국회정당동우회원 4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6일부터 10일 동안 방문 및 우편조사 방법으로 실시했다.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불교의식을 조사한 설문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상징물이 30.0%인 것으로 파악됐다.

참선을 가끔씩이라도 한다는 불자들의 70.0%로, 불교를 통한 자기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5.0%가 기도에 동참하고 있으며, 기도의 내용은 가정의 평안(32.5%), 소원성취(25.0%), 건강(7.5%), 선거문제(2.5%)의 순이었다.

불자들의 불교도덕성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불자들이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 질문에 70.0%의 불자들이 불교도덕성 회복(65.0%)이라고 답했으며(전폭지지 5.0%, 대체로 지지 30.0%, 가능한 지지 15.0%, 다소 영향 20.0%), 선거와 종교는 전혀 무관하다는 응답은 17.5%였다.

불자들의 불교도덕성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불자들이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 질문에 70.0%의 불자들이 불교도덕성 회복(65.0%)이라고 답했으며(전폭지지 5.0%, 대체로 지지 30.0%, 가능한 지지 15.0%, 다소 영향 20.0%), 선거와 종교는 전혀 무관하다는 응답은 17.5%였다.



20%만 반야심경 외어

불자들의 불교도덕성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불자들이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 질문에 70.0%의 불자들이 불교도덕성 회복(65.0%)이라고 답했으며(전폭지지 5.0%, 대체로 지지 30.0%, 가능한 지지 15.0%, 다소 영향 20.0%), 선거와 종교는 전혀 무관하다는 응답은 17.5%였다.

"불교의 사회기여도 낮다" 63%... '호국' 좋은 전통

불자들의 불교도덕성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불자들이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 질문에 70.0%의 불자들이 불교도덕성 회복(65.0%)이라고 답했으며(전폭지지 5.0%, 대체로 지지 30.0%, 가능한 지지 15.0%, 다소 영향 20.0%), 선거와 종교는 전혀 무관하다는 응답은 17.5%였다.

이 동감을 표시했으며, 35.0%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지난 9월 불자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같은 질문의 설문조사에서 불자교수들의 84.0%가 동의한 것과 상당한 견해차이를 보여 주목된다.

이동감을 표시했으며, 35.0%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지난 9월 불자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같은 질문의 설문조사에서 불자교수들의 84.0%가 동의한 것과 상당한 견해차이를 보여 주목된다.

"스님 존경" 37.5%

이동감을 표시했으며, 35.0%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지난 9월 불자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같은 질문의 설문조사에서 불자교수들의 84.0%가 동의한 것과 상당한 견해차이를 보여 주목된다.

이동감을 표시했으며, 35.0%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지난 9월 불자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같은 질문의 설문조사에서 불자교수들의 84.0%가 동의한 것과 상당한 견해차이를 보여 주목된다.

설문내용 · 응답집계

- ◇ 불교입문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 ① 국교이전 32.5%
 - ② 중학교 7.5%
 - ③ 고등학교 10.0%
 - ④ 사회진출후 40.0%
 - ⑤ 의원이 되고부터 7.5%
 - ⑥ 무응답 2.5%
 - ◇ 신앙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 ① 1~5년 5.0%
 - ② 6~10년 2.5%
 - ③ 11~20년 7.5%
 - ④ 21~30년 35.0%
 - ⑤ 30년 이상 47.5%
 - ⑥ 무응답 2.5%
 - ◇ 불교입문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인가.
 - ① 그렇다 65.0%
 - ② 타의 32.5%
 - ③ 무응답 2.5%
 - ◇ 불교입문에 영향을 준 사람은.
 - ① 아버지 20.0%
 - ② 어머니 30.0%
 - ③ 형제 2.5%
 - ④ 선배 2.5%
 - ⑤ 기타 12.5%
 - ⑥ 무응답 32.5%
 - ◇ 자주 다니는 사찰은 몇 곳이나 되나.
 - ① 한 곳 32.5%
 - ② 두 곳 25.5%
 - ③ 세 곳 17.5%
 - ④ 네 곳 2.5%
 - ⑤ 다섯 곳 이상 15.0%
 - ⑥ 무응답 7.5%
 - ◇ 사찰을 찾는 횟수는.
 - ① 1주1회 7.5%
 - ② 월1회 이상 27.5%
 - ③ 분기에 한두번 40.0%
 - ④ 반년에 한두번 10.0%
 - ⑤ 1년에 한두번 7.5%
 - ⑥ 무응답 7.5%
 - ◇ 올해 법회에 참석한 횟수는.
 - ① 1~2회 87.5%
 - ② 3~5회 20.0%
 - ③ 6~10회 10.0%
 - ④ 10회 이상 7.5%
 - ⑤ 무응답 35.0%
 - ◇ 배우자의 종교도 불교인가.
 - ① 그렇다 87.5%
 - ② 무종교 또는 타종교 5.0%
 - ③ 무응답 7.5%
 - ◇ 동거중인 부모·자녀의 종교도 불교인가.
 - ① 그렇다 75.0%
 - ② 무종교 또는 타종교 10.0%
 - ③ 무응답 15.0%
 - ◇ 반야심경을 막힘없이 외을 수 있나.
 - ① 외을 수 있다 20.0%
 - ② 어렵다 할 때는 된다 52.5%
 - ③ 못 외운다 22.5%
 - ④ 무응답 5.0%
 - ◇ 경전 읽기는 어느 정도 하는가.
 - ① 하루 1회 5.0%
 - ② 2~3회 2.5%
 - ④ 일주일 1회 15.0%
 - ⑤ 가끔 생각할 때 57.5%
 - ⑥ 하지 않는다 10.0%
 - ⑦ 무응답 2.5%
- ◇ 사찰에 가면 꼭 시주하나.
 - ① 갈 때마다 매번 한다 60.0%
 - ② 자주하는 편이다 27.5%
 - ③ 어쩌다 가끔 12.5%
- ◇ 집안에 어떤 불구를 보유하고 있나.
 - ① 불단 5.0%
 - ② 불상 27.5%
 - ③ 불상사진 17.5%
 - ④ 기타상징물 30.0%
 - ⑤ 무응답 20.0%
- ◇ 평소 참선을 자주 하는가.
 - ① 매일 한다 5.0%
 - ② 틈나는대로 25.0%
 - ③ 어쩌다 가끔씩 40.0%
 - ④ 하지 않는다 15.0%
 - ⑤ 무응답 15.0%
- ◇ 기도할 때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하나.
 - ① 건강 7.5%
 - ② 선거문제 2.5%
 - ③ 가정의 평안 32.5%
 - ④ 소원성취 25.0%
 - ⑤ 기타 5.0%
 - ⑥ 무응답 27.5%
- ◇ 오게 가운데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율은.
 - ① 불살생 7.5%
 - ② 불사음 7.5%
 - ③ 불음주 42.5%
 - ④ 불말어 15.0%
 - ⑤ 무응답 27.5%
- ◇ 한국불교는 지금 역사적으로 어떤 상태라고 보는가.
 - ① 쇠퇴기 15.0%
 - ② 중흥기 12.5%
 - ③ 소강국면 55.0%
 - ④ 모르겠다 7.5%
 - ⑤ 무응답 10.0%
- ◇ 한국불교의 수준을 채점한다면, 몇 점을 주겠는가.(최저한 해 탈주구를 10점, 오직 복을 비는 종교라고 생각한다면 0점)
 - ① 1~2점 5.0%
 - ② 3~4점 17.5%
 - ③ 5~6점 45.0%
 - ④ 7~8점 15.0%
 - ⑤ 8~10점 2.5%
 - ⑥ 무응답 15.0%
- ◇ '한국불교는 인구위원의 희망'이라는 말에 동의하는가.
 - ① 전적으로 동감 12.5%
 - ② 대체로 동감 42.5%
 - ③ 모르겠다 2.5%
 - ④ 다소 과장된 것 같다 30.0%
 - ⑤ 지나친 과장이다 5.0%
 - ⑥ 무응답 7.5%
- ◇ 한국불교가 당면한 과제는 무엇인가.
 - ① 종단의 화합 32.5%
 - ② 자기정화 노력 20.0%
 - ③ 수행정진 15.0%
 - ④ 지도력·조직력 강화 7.5%
- ⑥ 기타 22.5%
- ⑦ 무응답 2.5%
- ◇ 한국불교를 '호국불교'라 부르는 것에 대한 견해는.
 - ① 불교 본분이 어긋난다 2.5%
 - ② 과거의 전통일 뿐이다 17.5%
 - ③ 좋은 전통이므로 살려나가야 한다 65.0%
 - ④ 무응답 7.5%
- ◇ 조계종 새집행부가 개혁을 완수할 것으로 보는가.
 - ① 성공을 확신한다 5.0%
 - ② 성공가능성이 크다 50.0%
 - ③ 반반이다 15.0%
 - ④ 회의적이다 12.5%
 - ⑤ 무응답 17.5%
- ◇ 승단에 대해 솔직한 심정을 밝힌다면.
 - ① 대체로 존경 37.5%
 - ② 그저 그렇다 35.0%
 - ③ 존경보다는 회의가 앞선다 10.0%
 - ④ 존경심과는 거리가 멀다 2.5%
 - ⑤ 무응답 15.0%
- ◇ 성수대교 붕괴사건과 관련, 청와대불상을 저위서 그런 것이라는 풍문이 돌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① 일련 수명이 가는 풍문이다 15.0%
 - ② 두근거리는 의도적인 풍문이다 20.0%
 - ③ 그런 소문이 퍼지는 사회풍토에 문제있다 27.5%
 - ④ 일교의 가치도 없는 풍문이다 20.0%
 - ⑤ 무응답 17.5%
- ◇ 선거시 불자들이 불자후보라고 지지할 것으로 믿는가.
 - ①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5.0%
 - ② 대체로 지지 30.0%
 - ③ 가능하더라도 지지할 것이다 15.0%
 - ④ 다소간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0%
 - ⑤ 선거와 종교는 무관 17.5%
 - ⑥ 무응답 12.5%
- ◇ 불교가 역점을 두고 노력해야 할 분야는.
 - ① 경제정의 5.0%
 - ② 사회복지 7.5%
 - ③ 사회윤리·가치관 정립 75.0%
 - ④ 환경보전 2.5%
 - ⑤ 무응답 10.0%
- ◇ 한국불교는 해방 이후 우리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보는가.
 - ① 크게 기여했다 27.5%
 - ② 그저 그렇다 40.0%
 - ③ 기여도가 낮다 17.5%
 - ④ 기여하지 못했다 5.0%
 - ⑤ 무응답 10.0%
- ◇ 불교의 사회참여 활동에 만족하는가.
 - ① 그대로 만족 20.0%
 - ② 자기정화 노력 42.5%
 - ③ 대체로 불만 25.0%
 - ④ 무응답 12.5%

1995 새해 아침 이 기쁜 오늘, 부처님 자비 가득한 한해가 되길 빕니다.

대한불교관음종

주지대사 金大天
사서 金性眞
원로위원장 李慧雄
위원장 李泓波
총무부장 金智攝 교무부장 黃法明 재무부장 金鏡徽
사회부장 金性哲 감찰부장 金和服 조직부장 李宗炫
포교부장 鄭法性 총무부장 金鎭華

중회의장 鄭法輪
부의장 申無本 鄭春澤

교육원장 金東靈
수교부장 洪智默 독경부장 吳慧園

서울시 종로구 승인동 178-3
☎ (02) 763-3109, 3345
FAX (02) 763-5851

불교총지종

주지대사 祿靜
통리원장 曉岡
총무부장 圓蜂
재무부장 法成
사회부장 慧電
교정부장 四弘花

중앙중의회 의장 松霞
부의장 愚勝

사감원장 總持花

재단법인 사무국장 知性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6-2
☎ (02) 552-1080-3
FAX (02) 552-1082

대한불교화엄종

주지대사 韓龜河
의장 鄭熙秀

재단법인
화엄승가장학재단

인원직할시 남동구 간석 3동 산 21
☎ (032) 422-2066-7
FAX (032) 422-0413
서울사무소 (02) 730-0798-9

대한불교삼론종

주지대사 大善愷能
부총정 能봉용운

승정원장 월봉기원
총무원장 지강만청
종회의장 혜공재선
사정원장 각화청암
교육원장 대진영담
문화원장 대월법흥
교리연구원장 김인덕 교수

■ 총무원: 충북 중주시 교현2동 539-21
☎ (0441) 43-3000, 44-3000
FAX (0441) 845-5150